# 陶山九曲詩의 作品 현황과 創作 경향

金 文 基*

차 례

Ⅰ. 머리말
Ⅱ. 陶山九曲詩의 作品 현황
Ⅲ. 陶山九曲詩의 創作 경향
Ⅳ. 陶山九曲詩의 九曲文化史的 의의
Ⅴ. 맺음말

【 국문초록 】

구곡시는 성리학적 이념과 산수를 통한 흥취를 조화롭게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퇴계가 복거했던 도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산구곡 원림을 대상으로 창작된 도산구곡시는 최대의 작품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창작 경향과 구곡문화사적 위상을 고구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도산구곡시는 모두 차운시로서 7언 절구 10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일종의 제영시 형식을 띠고 있다. 13편의 도산구곡시 가운데 입도차제의 시는 이야순을 비롯하여 이종휴, 조술도, 류병문, 최승우, 금시술, 이시수, 하범운, 최동익 등이 지은 10편이다. 이들은 대개 승경을 이루고 있는 청량산을 진원묘처로 보고 청량산이 바로 도의 극처이지 별천지가 따로 없다고 하였다. 제9곡을 단사로 설정한 이들은 단사가 학문의 즐거움, 진리가 충만한 동천이라 보고 단사협이 바로 유람의 극처요 도학의 진원이라 하였다. 탁흥우의의 도산구곡시를 창작한 이는 이이순, 이가순, 김영두 등 3인인데 이들은 제9곡 청량이 아직까지 극처는 되지 못하고, 우뚝 솟은 12봉우리가 진정한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극처가 됨을 노래하였다.

도산구곡시는 구곡문화사적 측면으로 볼 때, 첫째, 영남학파 구곡시의 주류를 형성하여 여타 구곡시 창작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둘째, 도산구곡시의 창작과 함께 구곡시에 대한 비평이 전개됨으로써 도산구곡시 작자들은 조선조 후기 영남학파의 구곡시 비평을 주도하였으며 셋째, 도산구곡시의 창작은 퇴계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넷째, 도산구곡시 13편의 도산구곡시군은 구곡시 연구와 구곡문화 연구의 중심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도산구곡시, 도산구곡 원림, 무이도가, 입도차제, 탁흥우의, 극처, 진원

## Ⅰ. 머리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찬란한 꽃을 피운 것처럼 朱子의 武夷九曲櫂歌도 고려 말엽 내지는 조선조 초엽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크게 흥성함으로써 구곡문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장르를 창출하게 되었다. 조선조 유학자들은 朱子의 武夷九曲 경영과 武夷九曲櫂歌 창작을 본받아 絶勝地에 九曲園林을 설정하여 경영하면서 그 구곡을 대상으로 九曲詩歌를 창작하고 九曲圖를 그려서 완상할 뿐만 아니라 九曲詩에 대한 批評을 하는 등 九曲文化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러한 구곡문화는 성리학을 뿌리로 한 유학의 꽃이요 유교문화의 精髓라 할 수 있다.

논자는 구곡문화라는 유교문화의 큰 맥이 조선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구곡원림을 조사하고 구곡시와 구곡비평 및 구곡도에 관해 조사, 연구를 해왔다. 구곡원림과 구곡시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採芝堂 朴龜元(1442~1506)의 古射九曲 園林이 최초의 구곡원림이고 그가 지은 「古射九曲歌」가 최초의 구곡시이다. 다음으로 逍遙堂 朴

河淡(1479~1560)이 雲門九曲을 경영하면서 「雲門九曲歌」를 지었고 비슷한 시기에 退溪 李滉(1501~1570)은 退溪九曲과 陶山九曲을 경영한 듯하나 武夷九曲櫂歌 의 次韻詩는 지은 바 있지만 退溪九曲詩나 陶山九曲詩를 남기지는 않았다.[1)]

退溪九曲은 퇴계가 도산서당으로 講學處를 옮기기 전에 복거했던 寒棲庵을 중심으로 설정된 구곡원림인데 비해 陶山九曲은 陶山書堂(후일 陶山書院)을 중심으로 한 퇴계의 杖屨之所를 대상으로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따라서 도산서원이 퇴계학파의 道學傳授의 求心點 역할을 하였듯이 도산구곡도 퇴계학파의 중심적인 空間 구실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자가 武夷精舍를 건립하고 무이구곡을 경영하였듯이 퇴계가 도산서당을 건립하고 도산구곡을 경영함으로써 영남학파 구곡원림의 系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2)]

도산구곡시는 퇴계학파 유학자 12명에 의하여 13편이 창작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구곡원림 중에서 園林九曲詩가 제일 많이 창작된 구곡시 작품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구곡시보다 우선적으로 검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자의 무이구곡도가를 주제적인 측면에서 입도차제의 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물기흥의 시 또는 탁흥우의의 시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과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바, 본고에서도 이점에 촛점을 맞추어 도산구곡시들의 창작 경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구곡시는 성리학적 이념과 산수를 통한 흥취를 조화롭게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계가 복거했던 도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산구곡 원림을 대상으로 창작된 도산구곡시는 최대의 작품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창작 경향과 구곡문화사적 위상을 고구할

1)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와 韓國文化』 제42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2) 李殷昌, "韓國儒家傳統園林의 硏究",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8.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산구곡을 대상으로 창작된 도산구곡시의 작품 현황과 창작 경향, 도산구곡시의 구곡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Ⅱ. 陶山九曲詩의 作品 현황

도산구곡 원림을 대상으로 창작된 도산구곡시는 13편에 달하고 있다. 이 13편의 도산구곡시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창작되었다. 그러나 도산구곡시 각 편의 정확한 창작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가장 먼저 창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도산구곡시의 창작자는 晩谷 趙述道(1729~1803), 後溪 李頤淳(1754~1832), 霞溪 李家淳(1754~1832), 廣瀨 李野淳(1755~1831), 下庵 李宗休(1761~1832), 素隱 柳炳文(1766~1826), 聿窩 崔昇羽(1770~1841), 梅村 琴詩述(1783~1851), 慕亭 李耆秀(1790~1849), 竹塢 河範雲(1792~1858), 安愚 金泳斗(1857~1944), 晴溪 崔東翼(1868~1912) 등 12인이다. 이들은 각기 도산구곡시 1편씩을 지었는데 다만 慕亭 李耆秀만 2편의 도산구곡시를 창작하였다.

이들 도산구곡시는 모두 무이도가를 차운하거나 이야순이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지은 도산구곡시를 再次韻함으로써 7言絶句 10首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무이도가와는 달리 대체로 각곡시의 끝에 대상 구곡의 명칭을 붙여 일종의 題詠詩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선 도산구곡시 13편의 작품명, 작자, 작자의 생몰연대, 출전 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연번 | 작품명 | 작 자 | 시 형태 | 출 전 |
|---|---|---|---|---|
| 1 |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 晩谷 趙述道(1729~1803) | 7言絶句, 典型園林九曲詩 | 『晩谷集』 卷2 |
| 2 |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 後溪 李頤淳(1754~1832) | 〃 | 『後溪集』 卷2 |
| 3 | 陶山九曲 | 霞溪 李家淳(1754~1832) | 〃 | 『霞溪文集』 卷3 |
| 4 | 陶山九曲 | 廣瀨 李野淳(1755~1831) | 〃 | 『廣瀨文集』 卷1 |
| 5 | 漱石主人李健之次武夷九曲韻仍歌玉山退溪陶山九曲要予追和忘拙步呈 | 下庵 李宗休(1761~1832) | 〃 | 『下庵文集』 卷2 |
| 6 | 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和呈李健之野淳 | 素隱 柳炳文(1766~1826) | 〃 | 『素隱集』 卷1 |
| 7 | 敬次陶山九曲韻 | 聱窩 崔昇羽(1770~1841) | 〃 | 『聱窩集』 卷2 |
| 8 | 謹次廣瀨李丈陶山九曲韻 | 梅村 琴詩述(1783~1851) | 〃 | 『梅村集』 卷2 |
| 9 | 謹次陶山九曲歌幷序 | 慕亭 李蓍秀(1790~1849) | 〃 | 『慕亭先生文集』 卷1 |
| 10 | 次廣瀨李丈野淳續陶山九曲歌 | 慕亭 李蓍秀(1790~1849) | 7言絶句, 變形園林九曲詩 | 『慕亭先生文集』 卷1 |
| 11 | 陶山九曲 | 竹塢 河範運(1792~1858) | 7言絶句, 典型園林九曲詩 | 『竹塢集』 卷1 |
| 12 | 敬次陶山九曲 | 安愚 金泳斗(1857~1944) | 〃 | 『安愚遺稿』卷上 |
| 13 | 擬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 | 晴溪 崔東翼(1868~1912) | 〃 | 『晴溪集』 卷2 |

그러면 이러한 도산구곡시들의 창작 배경과 동기, 작품의 형식적 특징 등을 작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廣瀨 李野淳은 도산구곡의 설정과 도산구곡시 창작의 주인공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는 李象靖의 문하를 거쳐 金宗德에게 훈도를 받았는데 부형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과장의 무질서와 폐습을 보고 벼슬길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항상 퇴계의 遺書를 쌓아놓고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술도 등에게 자기가 창작한 도산구곡시의 和詩를 짓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야순은 도산구곡의 설정과 도산구곡시 창작에 앞장선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次武夷九曲櫂歌韻十首」와 함께 「陶山九曲」 시를 지었는데 각곡 끝에 '雲巖寺曲' '月川曲' 등과 같이 曲名을 표시하고, 序詩와 제1, 3, 8곡의 끝에 宣城誌나 退溪詩를 인용[3]하여 解註를 달아 놓았다.

이야순은 退溪九曲詩와 孤山九曲詩도 창작한 것 같으나[4] 자신의 문집에

는 실려 있지 않다. 그리고 이야순이 조술도, 이종휴, 유병문, 금시술, 이시수 등에게 도산구곡시를 창작하도록 권하자 이들이 이야순의 도산구곡시를 보고 그 화시를 지어 드렸으니,[5] 결과적으로 이야순은 대대적으로 도산구곡시 창작 운동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李頤淳은 퇴계의 9세손으로 태어나 家傳의 學에 유의하여 퇴계의 서적과 언행록 등을 가지고 평생 이 일에 종사하였다. 1799년 효릉참봉에 제수되었고 의금부도사, 군자주부 등을 거쳐 1806년 은진 현감을 지냈다. 퇴계 선생의 문집이 간행된 지 오래되어 결손된 것이 많았는데 그가 원임이 되자 수백 판을 개정하였으며 유림에서 청량산은 퇴계가 휴식하고 강도하던 곳이므로 그 곳에 정사를 지으려는 의논을 하자 그는 이 일을 주관하였다.[6] 후계는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도산구곡시를 짓고, 도산구곡시의 창작 목적을 '陶山이 武夷와 다름이 없음을 후인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저 영지산의 부용봉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은 만정봉・옥녀봉과 어떠한가? 학소암 갈선대가 위태롭게 절벽에 임한 것은 금계봉・선장봉과 어떠한가? 동서취병은 완연히 대은병・창병봉과 같다. 청벽 단사는 의연히 푸른 하늘의 도원동이다. (중략) 이에 마음에 느낌이 있어 말에 드러내어 굽이마다 차운하여 그 곳에 적고 그 일을 서술하여 뒷날 이 곳을 밟는 이가 이 산이 무이와 그다지 멀지 않고 이와 같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려 한다.[7]

---

3) 錦繡山光琉璃水色 見宣城誌先集陶山詩 山增嶷嶷水洋洋(序詩).
積陰云云 乾坤闢云云 見先集(第三曲詩).
先集有題孤山石壁詩(第八曲詩).

4) 漱石主人李健之 次武夷九曲韻 仍歌玉山退溪陶山九曲 要予追和 忘拙步呈(李宗休, 『下庵文集』 卷2, 詩).
按廣瀨稿孤山九曲詩 以後谷爲第九曲 蓋以老先生有瀑布詩 而淸凉以下有難標號排列之 成爲九曲故也(琴書述, 『素無軒文集』 卷1, 詩).

5) 위의 〈陶山九曲詩 현황〉 도표 중, '작품명' 참조

6) 先集刊行已久 類多頑缺 公適當先院任名 改正數百板…淸凉卽文純公棲息講道之所 先輩有營建精舍之意 而未遑矣 及至辛卯 儒林合謀刱始 而公亦主其事(李頤淳, 『後溪集』 卷10, 附錄, 「故恩津縣監後溪李公墓誌銘」).

이이순 역시 도산구곡시 각곡 끝마다 위치를 설명하고, 退溪詩를 비롯하여 퇴계의 武夷九曲圖跋文, 陶山記, 宣城誌 등을 인용하여 解詩하고[8] 있으며 '右雲巖', '右鼻巖' 식으로 曲名을 적어 놓았다.

霞溪 李家淳도 퇴계의 9세손으로 진성이씨의 가학을 이었다. 그는 1813년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통사랑으로 임명되고, 성현도찰방, 시강원설서 등을 역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가순은 진성 이씨 家學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1822년에 印信을 소홀히 하였다는 무고로 단양으로 유배되었다가 1831년 선전관에 이어 사간원정언・홍문관수찬・사헌부장령・응교・교리 등을 역임하면서 시폐를 구제하는 데 노력하였다. 사촌 이야순은 산림의 중망을 받았는데 이가순은 비록 명예로운 벼슬길에 자취를 드러냈으나 한 세대의 文學으로 추중을 받았다.[9]

특히 이가순은 산수 유람을 좋아하여 청량산, 소백산, 금강산 등을 두루 답사하고 玉山 體仁廟, 許租 遺墟, 周世鵬 선산, 李芝函 遺址 등도 參謁하였

---

7) 彼靈芝山芙蓉峯之秀出雲端者 何如幔亭玉女耶 鶴巢巖葛仙臺之危臨絶壑者 爭似金溪仙掌耶 東西翠屛 宛若大隱蒼屛 靑壁丹砂 依然碧霄桃源境也 (중략) 因其感於心而發之言者 計曲次韻 以識其處而述其事 使後之踐斯境者 有以知玆山之與武夷不甚相遠有如是也(李頤淳, 『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幷序」).

8) 陶山記曰 靈芝之一支 東出而爲陶山 又曰 洛川來過淸凉, 雲巖在陶山南十五里 卽一境水口也 先生 與後彫 把淸 雪月 日休 勉進 月川 諸公 遊雲巖寺 詩有論易討文之句, 鼻巖在雲巖北五里宣城邑鎭西 先生詩曰 斜陽相送處 畫裏過宣城, 月川在鼻巖東八九里芙蓉峯下 先生稱爲江山第一 次芙蓉作詩曰 溪堂月白川堂白, 汾川在月川西北五里許 聾巖先生亭舘在焉 聾巖晩退 使侍兒歌漁父辭 先生討稱聾巖爲老仙伯, 濯纓潭在汾川東二里許 陶山書堂在其上烟林二十六處之一 先生濯纓潭泛月詩曰 不知百世通泉後 更有何人續正聲, 川沙在濯纓東西五里 東翠屛 西紫霞塢 川上有七臺 臺上有月瀾菴 先生 川沙曲詩曰 玉虹抱村斜 寓月瀾詩曰 自憐山月暎孤衾, 丹砂在川沙北二三里 先生 丹砂曲詩曰 靑壁欲生雲 綠樹如入畫 又曰 花發桃源界 又曰 中藏萬斛砂 秘寶天所戒, 孤山在丹砂北七八里 有惺齋精舍 先生 書孤山石壁詩曰 日洞主人琴氏子 隔水呼問今在否, 淸凉在孤山北五六里 先生 武夷九曲圖跋曰 三十六洞天 無則已 有則武夷當爲之第一(李頤淳, 『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9) 同堂兄弟 廣瀨翁野淳 負山林重望 參判公泰淳 以宦業歷敭 公雖以名塗發迹 而一世之以文學見推(李家淳, 『霞溪文集』 권12, 附錄, 行狀).

다. 특히 무이구곡도가의 차운시는 물론이고 도산구곡시를 비롯하여 退溪九曲詩, 玉山九曲詩, 源明九曲詩, 小白九曲詩 등 5편의 구곡시를 남겼다. 그는 가히 구곡시의 대가라 할 만하다.

이가순은 이야순, 이이순과 달리 도산구곡시 각곡 끝에 解註를 달아놓지 않았으나 '雲巖曲', '月川曲' 등과 같이 곡명은 밝히고 있다.

晩谷 趙述道는 이야순보다 20여 세 손위이지만 이야순으로부터 도산구곡시의 화운시를 지어보라는 요청을 받고 차운시를 지어 보내었다. 그는 李象靖, 金樂行의 문인으로 어려서 자질이 영민하여 經傳, 諸子百家를 두루 관통하였으나 조부가 당쟁에 희생되자 과거에는 나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무이구곡 차운시를 짓고 이어서 도산구곡시를 창작했는데 제7곡으로 廣瀨曲을 설정하고 도산구곡의 범위도 月川부터 丹砂까지로 하였다. 이는 광뢰로부터 도산구곡가 창작을 권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가까운 친분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는 도산구곡시의 각곡 말미에 解註는 달지 않았고 '月川曲', '鰲潭曲' 등과 같이 曲名을 밝히고 있으며 後序에서 무이구곡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武夷櫂歌 제9곡시에 쓰인 '除是'는 우리말로 '이난마로' 또는 '이리마다'라는 금지의 말이라고 하고 "유학은 세상 밖의 玄虛하고 幽渺한 道가 아니기 때문에 '霜麻'나 '雨露' 등은 실제적인 理致이므로 하필 桃源의 別天을 구해야 할까?"[10]라고 하여 因物起興說을 비판하였다.

下庵 李宗休는 1783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잠시 성균관에 머물다가 귀향하여 학문에만 몰두하였는데 "漱石 주인 李健之가 무이구곡운을 차운하고 옥산, 퇴계, 도산 구곡운을 노래하고서 나에게 화답하기를 청하기에 졸렬함을 잊고 지어 드린다"[11]고 詩題하면서 무이도가 차운시를 비롯하여 도산구곡시

10) 且除是云者諺云이난마로 一云이리마다 則皆從勿字禁止之辭 鄙意於此 竊以爲此學匪世外玄虛幽渺之道 卽此桑麻也 雨露也 皆實理也 何必更覓於桃源之別天乎(趙述道, 『晩谷集』 卷2, 詩,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11) 漱石主人李健之 次武夷九曲韻 仍歌玉山退溪陶山九曲 要予追和 忘拙步呈(李宗休, 『下庵

와 함께 퇴계구곡시와 옥산구곡시도 창작하였다.

그는 도산구곡시 각곡의 말미에 '雲巖', '月川' 등으로만 곡명을 밝혀 놓았다.

素隱 柳炳文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嚴한 敎道를 받고 자라 德器가 深厚하였고 志意가 堅懇하였으며 퇴계와 大山의 遺文을 연찬하여 그들의 학문을 더욱 심화시켰다. '古君子요 老佛子와 같다'[12]고 稱賞된 그는 「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和呈李健之野淳」이라 제목한 도산구곡시와 함께 퇴계구곡시도 창작하였다. 도산구곡시는 무이도가를 차운한 7언 절구 10수이고 역시 각곡의 하단에 曲名을 摘記한 전형적인 園林九曲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지은 퇴계구곡시는 각곡의 첫머리에 曲次 表示의 語句가 없는 變形九曲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聾窩 崔昇羽는 도산구곡시인 「敬次陶山九曲韻」 1편을 창작했는데 도산구곡의 범위를 月川으로부터 丹砂까지로 한정하고 제7곡으로 廣瀨曲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산구곡운을 '敬次'했음을 볼 때, 역시 이야순의 권유로 이 도산구곡시를 지은 것 같다. 그는 18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副正字가 되었고 1820년에 成均館典籍에 올라 宗簿寺主簿가 되었으며 이어서 正言, 持平에 제수되었으나 사임하고 오로지 독서에만 몰두하였다. 그의 작품에도 각곡의 끝에 곡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만 서시 끝에 '櫂歌'라 표시한 것이 특이하다. 시 형식은 7언 절구 10수로 된 원림구곡시이다.

梅村 琴詩述은 광뢰에게 수학했으며 지조가 곧고 문장에 능하였다. 1844년 文科에 급제하여 監察과 典籍을 거쳐 1851년 正言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스승인 이야순의 도산구곡운을 차운하여 도산구곡시 1편을 지었는데 이 또한 전형적인 원림구곡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도산구곡의 범위를 월천에서 단사까지로 설정한 것은 조술도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集』 권2, 詩).

12) 不見古君子 當見今仲虎 欲見老佛子 仲虎且可覩(『素隱集』 卷6, 附錄, 挽詞, 李野淳).

慕亭 李蓍秀는 숙부 이종휴에게 취학하여 날마다 좌우에 모시고 교훈을 받아 15~16세에 시문이 크게 진보하여 선진이 따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부친이 과장에서 횡사한 후로 과거에 뜻을 버리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여 經籍을 고루 탐독하였다. 그는 무이도가 차운시를 짓고 옥산구곡가와 고산구곡가 2수의 원림구곡가를 창작한 다음, 다시 자신이 도산구곡의 지점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도산구곡시를 새로 창작하였다. 그는 '幷序'에서 「續陶山九曲歌」를 짓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대저 陶山 상하 일대의 빼어난 경치는 선생의 杖屨之所와 題品의 장소로 쓰였으니 나는 천지가 열린 처음부터 이러한 形勝들이 禮安 지역에 조화롭게 뭉치고 펼쳐진 것은 모두 도산을 위해 설치된 것임을 안다. 그러나 선생의 雜詠詩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릇 산수는 각기 주인이 있기 때문에 도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아래에 별도로 실어 놓았으니 大君子는 남의 아름다움을 빼앗지 아니하고 대중과 더불어 爲善하는 뜻을 이에서 볼 수 있다. 내 미치고 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 도산이 관할하는 것을 좇아 石澗을 시작으로 하고 巖西를 끝으로 하여 구곡을 얻었으니 여기서 曲이라 이르는 것은 歌曲의 뜻이다.13)

이시수는 도산 상하 일대가 퇴계의 杖屨之所요 題品之所이기는 하지마는 大君子는 남의 美的인 대상을 독점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향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산구곡은 바로 도산에 속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石澗부터 巖西齋 사이를 도산구곡으로 새로 설정했다고 하였다. 자기가 설정한 이 구곡의 '曲'은 노래의 曲이라 규정하였다. 이시수의 구곡 설정 기준은 산수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구곡원림의 구곡설정 기준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

13) 竊觀先生雜詠中 凡山水之各有主 而不屬陶者皆別錄于下 大君子不掠人美 與衆爲善之意於此可見不揆狂僭 又近就陶山管領中 以石澗爲始巖棲爲終 而凡得九曲焉 此所謂曲 卽歌曲之意也(李蓍秀, 『慕亭先生文集』 권1, 詩, 「次廣瀨李丈野淳續陶山九曲歌」).

그가 창작한 「次廣瀨李丈野淳續陶山九曲歌」는 각곡의 끝에 '右雲巖' 등으로 題詠詩 형태를 취하면서 제4, 6, 7, 9곡에 解註로서 퇴계시를 인용하여 두었고 특히 제3곡 鰲潭과 제5곡 濯纓潭에는 위치를 밝혀 놓았다. 그리고 그가 직집 도산구곡의 범위와 지점을 새로 설정하고 지은 「續陶山九曲歌」는 각곡시의 初頭에 曲次를 밝히는 語句를 쓰지 않고 曲末에 '右一曲石澗臺' 등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續陶山九曲歌」는 전형적인 원림구곡시가 아니라 變形九曲詩에 해당한다.

竹塢 河範運은 진주에서 태어나 雲谷書院에서 학업을 하였고 洛閔書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春秋의 褒貶義理에 뜻을 두었다. 상주 우천에 있는 江皐 柳尋春을 찾아뵙고 배움을 청하였으며 도산에 가서 尙德祠를 배알하고 漱石亭에 있는 廣瀨에게 절하였다. 1823년 퇴계집을 校勘하는 일로 禮安에 갔다가 광뢰의 도산구곡시를 차운하여 「陶山九曲」, 「玉山九曲」, 「德山九曲」 등 3산의 구곡시를 지어 광뢰에게 드렸다.[14]

그가 창작한 「陶山九曲」은 역시 7言絶句 10수로서 전형적인 원림구곡시에 해당하며 곡말에 '右雲寺曲' 등으로 곡명을 밝히고 제3, 9곡에 해주를 붙여 곡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安愚 金泳斗는 해방 직전까지 생존한 인물로서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詞章을 業하고 名利를 구하는 것은 爲己之學이 아니라는 훈계를 듣고 과거의 뜻을 버리고 독서와 저술로 일생을 마쳤다. 「心性情三說」, 「謹言說」, 「謹獨說」, 「勸學說」 등을 저술하여 스스로를 경계하였고 武夷九曲, 陶山九曲, 高山九曲의 차운시를 지어서 밤낮으로 誦詠하여 마음을 豁然히 함으로써 선현을 羹墻

14) 粵 癸未冬 余以先集校勘之事 往禮安 就拜參奉李丈於漱石亭上 李丈終日危坐 眷誨不倦 及告歸 手書陶山玉山二九曲題目 以曉之 使之和送 其意申申 有不可以寡陋而孤之者 乃以暇日 逐一拚和 附以德山一篇 遂成三山九曲 三山之有九曲 所以見道學源流之盛 在於吾嶺云(河範運, 『竹塢集』, 卷1, 詩, 「謹步武夷櫂歌韻 作三山九曲 奉呈漱亭參奉李丈野淳案下 以備吾嶺故事 幷小序」).

하는 뜻을 드러내었다.

그가 지은 도산구곡시 「敬次陶山九曲」도 7言絶句 10수로서 전형적인 원림구곡시인데 曲末에 곡표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제1, 5곡을 제외한 7곡의 詩 끝에 각곡과 관련이 깊은 퇴계시를 인용하여 解註로 삼고 있다.

晴溪 崔東翼은 일찍이 后山에게 나아가 四書의 의문점을 물었고 西山 金興樂을 뵙고 상례의 법을 배웠으며 張福樞, 李晩求 등 諸賢과 討講하면서 도산의 尙德祠를 비롯한 선현들의 유촉을 배알했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을 유상하기도 하였다. 그가 창작한 도산구곡시 「擬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은 7언절구의 전형적인 원림구곡시 형식인데 곡말에 '右雲巖曲'과 같이 곡명을 기록하였고 지점의 위치 설명과 함께 '泛月濯纓潭' 등 퇴계시의 시상을 원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Ⅲ. 陶山九曲詩의 創作 경향

도산구곡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李野淳, 李家淳, 李頤淳 등 퇴계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 유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창작되었다. 도산구곡시는 20세기 전반까지 13편이 창작되었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入道次第的인 詩와 托興寓意的인 詩라는 두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는 퇴계의 무이도가 시인식과도 관련이 깊다. 구곡시의 시 성격 규명은 모든 굽이의 시 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遊覽의 極處라고 볼 수 있는 제9곡시가 그 성격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도산구곡시의 제9곡시를 중심으로 하여 도산구곡시 창작의 두 경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入道次第의 詩

우선 입도차제적인 도산구곡시를 창작한 유학자는 廣瀨 李野淳을 비롯하여 下庵 李宗休, 晩谷 趙述道, 素隱 柳炳文, 聿窩 崔昇羽, 梅村 琴詩述, 慕亭 李耆秀, 竹塢 河範雲, 晴溪 崔東翼이다. 최동익 외에는 모두 18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9세기 전반까지 생존한 인물로서 도산구곡시 창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廣瀨 李野淳은 도산구곡시 序詩에서 도산이 道가 충만한 신령한 공간이라고 읊고 제5곡에서는 농운정사가 있는 탁영담이 道의 眞源處임을 노래하였다.

錦繡琉璃已炳靈　금수같고 유리같아 이미 밝고 신령스러우니
山增嶷嶷水增淸　산은 더욱 높디높고 물은 더욱 맑네
休云大隱屛相遠　대은병과 서로 멀다 말하지 말라
千載同歸一櫂聲　천년동안 한 도가 소리 함께 돌아가는 것을

五曲纓潭不測深　오곡이라 탁영담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니
涵渟餘派遍千林　괴인 물의 여파가 온 숲에 미치네
如斯有水源源處　이같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 있으니
思古人惟獲我心　고인을 생각하매 오직 내 마음 얻네
濯纓潭曲

이야순은 서시에서 도산구곡을 금수와 같이 아름답고 유리구슬같이 맑고 밝은 仙區로 규정하고, 높다란 청량산은 도의 중심체를 이루고,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은 맑고 맑아 퇴계가 거처하는 陶山을 淸淨한 道가 충만한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주자가 거처했던 은병정사가 도산과 거리로는 멀지마는 무이도가와 도산구곡시를 읊는 가운데 동일한 유학의 도장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주자와 퇴계를 동일시하였다. 제5곡시에서는 탁영담의 물이 깊듯이 퇴계의 높은 도학이 천하에 큰 영향을 끼침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면서 가문에 대

한 자부심과 함께 가학을 계승코자하는 자신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퇴계의 9세손인 광뢰는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並序」[15]에서도 가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九曲山深勢絶然　구곡이라 산 깊어 세가 빼어나니
山中誰認有斯川　산 중에 이 시내 있는 줄 누가 알겠는가
人間可怕桃花浪　인간세상 도화의 물결 가히 두려워
分付沙鷗護洞天　갈매기에 분부하여 동천을 보호케 하네
淸凉曲

이 제9곡시에서는 도산구곡의 끝굽이인 청량산은 산세가 빼어나서 승경을 이루고, 앞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으니 인간의 삶에 더없는 이상적인 거처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道의 極處가 됨을 전제하고, 桃源境의 부화한 道仙的 물결이 흘러들어서 청정한 道學의 공간을 흐리게 할까 염려되어 갈매기로 하여금 도의 공간인 이 동천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야순은 청량산이 바로 道의 極處이지 別天地가 따로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야순의 도산구곡시가 入道次第의 詩임을 알 수 있다.

晩谷 趙述道는 무이구곡 차운시와 함께 도산구곡시 차운시를 짓고 後序에서 무이도가는 托興寓意의 詩라는 퇴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16] 入道次第的인 시인식을 드러내었다.

---

15) 通泉百歲輟微響　백세 토록 샘이 흘러 은미한 소리 끊기니
更有何人知此心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마음 알 수 있을까
(李頤淳, 『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並序」, 第五曲)

16) 如此解釋 雖少多曲折 而上下意思 却似貫通圓活 未知以爲如何 愚非以此爲自信之說 而先生與奇高峯書 亦有二意 問高峯之如何 認得恨不得執灑埽於當日巖栖謦欬之側也 且因此而更及子朱子鵝湖詩語末句 先輩皆以無言爲夫子 予欲無言之意 此恐說合殺無究竟處也 蓋子靜專以尊德性爲主 平日了解 皆以無言 而萬理呈露 不知格致 爲吾家入手處 故如古今事變時務之學 皆不屑爲也 此所以卒得罪 而至今流弊未已也(趙述道, 『晩谷集』 卷2, 詩,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무이구곡」 끝의 2구는 이미 선생의 정론이 있으니 후생이 마땅히 가슴에 새기고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일 살펴보니 나의 얕은 소견에는 한두 가지 차이나는 것이 있었다. 선배를 경외하는 일은 진실로 未學의 일이고 강론의 같고 다른 것은 또한 병행해도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성인의 도는 자연스레 펼쳐 놓아 지극히 평이한 곳에 지극히 고고하고 오묘한 도리가 있으니 안자가 말한 우뚝한 경지는 그윽하고 아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증자가 말한 하나로 꿰뚫는 경지는 또한 다만 忠恕일 따름이다 한 것 같은 것이다. 저 구곡의 땅은 뽕과 삼이 울창하고 비와 이슬이 때로 내리며 천광이 날로 밝아 의사가 환하게 트이니, 곧 백성이 생활하는 일상에 천리가 유행하여 만물이 밝게 드러나는지라 그 경계의 오묘한 것이 처음부터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다.[17]

晩谷은 '성인의 도는 지극히 평이한 곳에 지극히 오묘한 도리가 있다'고 하며 九曲櫂歌 제9곡의 霜麻雨露는 '日常事에 天理가 流行하여 만물이 밝게 드러남을 드러내는 오묘한 경지'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次陶山九曲」의 序詩에서 청량산의 道氣가 청정하고 천 년 전 주자가 읊은 구곡도가의 높은 향기를 지금도 향유한다[18]고 하였고, 제9곡시에서는 단사곡 이곳이 바로 道의 極處라고 표현하였다.

九曲丹砂境窈然　　구곡이라 단사는 경계가 그윽한데

17) 武夷九曲末二句 已有先生之定論 後生所當服膺而謹守者 而平日鑿解 淺見竊有一二參差者 蓋尊畏前輩 固未學之事 而講論同異 亦並行而不悖者也 蓋聖人之道 平鋪放著 至平易處有至高妙底道理 如顔子之卓爾 非窈冥昏默者 曾子之一貫 亦只是忠恕而已 夫九曲之地 桑麻蔚然 雨露時行 天光日晶 意思豁然 卽生民日用之常而天理之流行 百物之昭著 其境界之妙處 未始不在於其中趙述道(『晩谷集』 卷2, 詩,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18) 蓮峯東立聳精靈　연꽃 봉우리 우뚝하여 정령이 솟은 듯하고
洛水黃池道氣淸　낙동강 황지에서 흘러 도기가 깨끗하네
千載瑤絃開寶匣　천년된 옥 거문고 보갑을 여니
至今人聽匏悤聲　지금 사람들 어부가를 듣네.
(『晩谷集』 卷2, 詩,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居人解說葛洪川　주민들 갈홍의 내를 이야기 하네
百年復有通泉感　백년 뒤에 다시 통천의 감회가 있어
誰採靈芝遡洞天　누가 영지 캐려 동천으로 거슬러 오르겠는가
丹砂曲

晩谷이 도산구곡의 제9곡으로 삼은 丹砂峽은 단사 마을 앞에 있는, 1km에 이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퇴계가 이렇게 명명하였는데 푸른 강물과 둘러있는 단애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고 이곳엔 옛날부터 신선이 살았으며 이곳의 붉은 흙인 丹砂는 신선들의 식량이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전설을 상기시키며 "누가 진리의 근원을 찾고자하는 마음이 있어 진리를 찾아 이 동천으로 올 것인가"라고 읊어 이 단사협이 도와 진리의 眞源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下庵 李宗休는「陶山九曲」제9곡에서 청량산 12봉우리가 있는 청량산이 바로 別天이라고 표현하였다. 下庵은 기세가 우뚝한 원두 청량에 오르니 전망이 밝고 넓게 확 트이고, 앞에는 평천이 내려다 보이는데 이곳이 삶의 일상적인 터전으로 천리가 유행하는 도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吾家山의 지경이 아주 넓지는 않으나 12봉우리가 자리한 이곳이 바로 別天이요 학문의 究竟處라고 하여 입도차제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九曲淸凉勢卓然　구곡이라 청량은 기세가 탁연하여
源頭昭曠覩平川　원두는 밝고 트여 평천이 내려다 보이네
吾家外圃知無遠　오가의 외포는 멀지 않은 줄 아니
六六山窮是別天　육육봉 다한 이곳이 별천지일세
淸凉

素隱 柳炳文은 처사로 자처하며 평생 잡예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하여 광뢰가 그 그릇됨을 중히 여긴 학자였는데 광뢰의 도산구곡시를 차

운하여 도산구곡시와 퇴계구곡시를 창작하였다.

五曲纓潭托意深　오곡이라 탁영담은 탁의함이 깊도다
當年化雨賁烟林　당년의 교화의 비 안개 숲에 내리네
欲知千古單傳訣　그 옛날 단전의 비결을 알리고자
秋月寒川印一心　찬 내에 뜬 가을달이 내 마음에 비추네
濯纓潭

九曲沿流意曠然　구곡이라 물을 따라가니 뜻이 활짝 열리고
蓮臺鍾響落寒川　연대의 종소리가 차가운 시내에 울리네
家山占取仙眞境　오가산이 선계의 진경을 차지하니
云是人間一洞天　이곳이 인간 세상에 한 동천이라네
淸凉山

素隱은 「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和呈李健之野淳」 제5곡시에서 퇴계의 교화가 지금도 이 세상에 널리 펴지고 있으며 마음으로 전하는 천고의 道心을 알리려고 '찬 시내 가을달이 내 마음에 비춘다'고 하여 5곡 탁영담이 道心이 충만한 道의 空間임을 읊고 있다. 제9곡시에서는 청량산 물을 따라 나아가니 앞이 확 트여 마음이 열리는 듯하며 청량사의 종소리는 은은히 사람들이 거처하는 마을 시내까지 들려온다고 하고 퇴계의 청량산이 신비로운 眞境을 차지하고 있으니 청량산 바로 이곳이 學問의 極處를 이루는 洞天이라고 표현하였다.

聱窩 崔昇羽는 시에 능하여 「敬次陶山九曲韻」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敬次陶山雜詠十八絶」, 「敬次閑居陶山十二詠」, 「題畵屛八帖」, 「題畵卷十一帖」 등 퇴계시에 대한 차운시를 비롯한 連作詩를 많이 창작하였고 '歌辭'라 하여 拜北室歌, 采薇亭歌, 金剛圖屛歌, 農謳十四章, 鄕思曲, 思歸曲 등 17편을 창작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九曲丹砂勢豁然　구곡이라 단사는 지세가 활짝 열리니
仰觀層壁俯長川　층벽을 우러러 보고 장천을 내려다 보네
詩書經濟桑麻業　시서와 경제는 상마를 일삼는 일이니
樂地何年闢洞天　어느 해 낙토에다 동천을 열었는가
丹砂

聾窩는 제9곡을 단사로 지정하고, 단사의 지세가 환하게 열려 시원하면서 가파른 층층 절벽을 긴 강이 에워싸면서 흐르고 있다고 하였다. 학문이나 나라 경영은 바로 이곳에서 누에치고 삼을 가는 일상의 家業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 언제 학문의 즐거움, 진리가 충만한 동천을 열었느냐고 반문하였다. 이 제9곡 단사협이 바로 遊覽의 極處요 道學의 眞源이라는 것이다.

梅村 琴詩述도 광뢰의 도산구곡시를 차운하여 도산구곡시 「謹次廣瀨李丈陶山九曲韻」을 창작하였다. 그는 단사협을 제9곡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九曲將窮轉窈然　구곡이 다하려 하매 도리어 그윽하고
丹砂萬斛秘靈川　붉은 모래 만 섬이 신령스런 내에 숨겼다네
儒仙故解參同訣　유선은 그 옛날 참동계를 풀이하여
欲煎金膏普一天　선약을 다려 천하에 펴려고 하네
丹砂曲

梅村은 단사협이 경개가 그윽할 뿐 아니라 신선이 먹는 단사 만 섬이 냇가에 숨어 있다고 하고, 유선들은 신선술과 선약을 먹고 장생하는 수련법을 소개해 놓은 參同契를 풀이하여 선약을 만들어서 천하에 분배하려 한다고 읊었다. 매촌은 9곡 단사협을 仙藥과 같은 道學이 완성되어 인간에 널리 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慕亭 李著秀는 「謹次武夷櫂歌竝序」의 서문에서 무이도가를 托興寓意의 詩

로 파악하였다. 그는 퇴계가 많은 九曲櫂歌 和詩들이 주자의 뜻을 얻지 못했음을 늘 한탄하였다고 하고, 陳懼齋의 註說에서는 入道階級으로 파악했으나 주자의 九曲櫂歌의 本意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다고 보았다.

> 제가 일찍이 무이지를 읽고 朱門 이후 여러 군자들의 九曲櫂歌 和詩가 성했음을 알았는데 퇴계 선생은 늘 그 시들이 주자의 뜻을 얻지 못했음을 한하였고 陳懼齋의 註說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入道階級으로 말하였다. 나는 생각컨대 시의 본의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퇴계가 이 노래를 화운한 것이 다만 尋幽選勝한 뜻을 일컬었지만 學問造詣의 妙가 言外에 저절로 나타나니 이를 가히 알지 않을 수 없다.19)

그리고 퇴계의 九曲櫂歌 和詩가 빼어난 절경을 찾는 뜻을 말하였지만 學問에 이르는 妙理가 言外에 저절로 드러나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자의 武夷櫂歌나 퇴계의 和詩가 단순히 敍景的인 因物起興적인 詩가 아니라 言外에 入道次第的인 妙理가 드러나는 托興寓意的인 詩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은 入道次第의 詩를 창작하였다.

| | |
|---|---|
| 九曲諸峰疊疊然 | 구곡이라 여러 봉우리 첩첩하니 |
| 爭流萬壑下成川 | 만학으로 다투어 흘러내려 시내를 이루네 |
| 此山自是吾家物 | 이 산은 본래 오가의 물건이니 |
| 莫把靈區付別天 | 신령한 지역만을 별천에 부치지 말라 |
| 右淸凉 | |

慕亭은 제9곡 시에서 청량산은 본래 퇴계 집안의 산이므로 퇴계가 주인인 청량산은 道學의 妙處이기 때문에 달리 道家的인 仙區를 別天이라 하지 말라

19) 著嘗讀武夷志 見朱門以後 諸君子之和九曲櫂歌者深盛 而退溪先生每恨其未得朱子意 至於陳懼齋註說 則又專以入道階級言之 竊恐詩之本意 亦未必如是 故退溪之和此歌也 只道尋幽選勝之意 而學問造詣之妙 自見於言外 此不可不知也(李著秀, 『慕亭先生文集』, 卷1, 詩, 「謹次武夷櫂歌竝序」).

고 하였다. 그는 또 「續陶山九曲歌」 제9곡 시에서 隴雲精舍가 바로 道學의 眞源이라 읊었다.

山下蒙泉混混然　산 아래 몽천에 물이 펑펑 솟아나서
盈科日夜赴長川　날마다 주야로 웅덩이 채우고서 긴 내로 흐르네
此間知有靈眞宅　이 사이에 신령스럽고 참된 집이 있음을 아나니
莫道躋攀遠似天　먼 하늘같은 곳으로 오른다는 말 하지 말게
右九曲隴雲精舍

慕亭은 농운정사 右便에 있는 蒙泉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 주야로 강물로 흘러가는 것을 퇴계의 도학사상이 널리 펴지는 것에 비유하여 이 농운정사가 있는 도산이 道學의 眞源處이니 먼 하늘같은 仙境을 찾지 말라고 하였다. 모정은 前後 陶山九曲歌에서 분명히 道學次第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竹塢 河範運은 도산구곡 제9곡 시에서 청량이 機心이 없는 道心으로 가득하다고 노래하였다. 죽오는 士林들의 도학적 경륜은 능히 세상을 구제할 만하고 櫂歌를 노래하는 기풍 속에 청량산은 機心 없는 純正한 淸淨의 공간이 되어 桃花를 떠내려 보내 道의 極處임을 알린다고 하였다.

九曲淸凉入杳然　구곡이라 청량에 드니 앞이 아득하고
經綸非乏濟長川　경륜 모자라지 않아 온 세상 구제하네
高歌喚起忘機鳥　도가를 노래하니 새들은 기심을 잊고
流水桃花欲暮天　저물려 하는 때에 도화를 떠내려 보낸다네
右淸凉曲

晴溪 崔東翼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까지 삶을 영위한 학자로서 김흥락의 문인으로 백운동에 은거하며 후진교육에 힘썼다. 그는 「擬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 10수를 지었는데 安愚 金泳斗와 함께 陶山九曲詩 창작의 大尾

를 장식한 유학자이다.

九曲淸凉眼豁然　구곡이라 청량은 눈앞이 활짝 트이니
上窮蒼壁下平川　위로는 끝없는 푸른 절벽 아래로는 평천일세
已臻妙境難言處　묘한 경계 다하여 말로하기 어려운 곳
不必重尋別一天　다시 별천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네
右淸凉曲

청계는 제9곡인 청량은 이미 道學의 妙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遊人은 또 다시 별천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곳이 道學의 極處라 하여 入道次第的인 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2. 托興寓意의 詩

탁흥우의적인 도산구곡시를 창작한 유학자는 後溪 李頤淳, 霞溪 李家淳, 安愚 金泳斗 등이다.

李頤淳은 도산구곡 제5곡 시에서 퇴계의「濯纓潭泛月」詩를 원용하여 백세토록 유전하는 퇴계의 학문을 계승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가학 계승을 자임하는 심정을 토로 하였고, 제9곡 시에서는 청량산의 절경을 묘사하고 무이산 육육봉과 같이 청량산 12봉우리도 第一天이 된다고 하였다.

五曲移舟潭水深　오곡이라 탁영담 물 깊은 데로 배 저어가
坐看殘月繞烟林　앉아서 잔월 보니 연림이 둘렀네
通泉百歲輟微響　백세 토록 샘이 흘러 은미한 소리 끊기니
更有何人知此心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마음 알 수 있을까
右濯纓

九曲山深更卓然　구곡이라 산이 깊어 더욱 우뚝하니
仙峯六六影流川　육육의 신선 봉우리 흐르는 내에 비취네

宛如卅六洞天在　완연한 서른 여섯 봉우리 동천에 있으니
此亦當爲第一天　이 또한 마땅히 제일천이 되네
右淸凉

제5곡 시에서는 달은 지고 숲에는 안개 끼여 있는, 물 깊은 탁영담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퇴계를 추상하고 선생의 학문을 계승하지 못함을 '隱微한 소리 끊겼다'고 우의하면서 은근히 가학을 계승할 수 있는 이는 자신임을 노래하였다. 제9곡 시에서는 퇴계가 「武夷九曲圖跋」에서 '삼십육 동천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무이가 마땅히 제일이 된다'고 하는 말을 원용하여 청량산 12봉우리도 제일천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제일천은 유람의 끝 지점인 極處를 말한다. 청량산이 구곡 유람의 마지막 굽이지만 이곳이 아직까지 奇絶處는 되지 못하고 좀 더 나아가면 오를 수 있는, 멀리 우뚝 솟은 12봉우리가 진정한 極處가 됨을 노래하였다. 우뚝한 육육봉이 바로 遊人의 別天이고 道學의 造詣處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계가 지은 도산구곡시 제2곡시와 제9곡시에 나타난 托興寓意의 시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二曲芙蓉第幾峯　이곡이라 부용봉은 몇 번째 봉우리인가
林中一鳥謝塵容　숲 속에 한 새는 세속의 모습을 사양하네
滿川風月同心賞　시내에 가득한 풍월은 심상을 함께 하나
浩劫溪山隔萬重　오랜 세월 시내 산이 만 겹이나 막혔네
月川曲

낙동강 물길을 거슬러 오르다 부용봉이 보이면 대부분의 유람객은 월천에 이르렀다 생각할 만큼 부용봉은 월천의 굽이를 대표하는 봉우리이다. 하계는 월천 숲의 새를 보며 '세속의 모습이 아니라' 하였다. 이것은 하계가 월천의 굽이를 단순히 혼탁한 속세의 공간이 아니라 人慾이 존재하지 않는 淸淨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퇴계가 여러 사람들과 월천정에서 더위를 피하고 풍월담에 배를 띄워 노닐었던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20] 그래서 하계는 시내에 가득한 風月이 心賞을 함께 한다고 하였다. 지금 시내 위에 비치는 달과 부는 바람은 퇴계가 함께 했던 달과 바람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하계는 월천의 시내 산이 오랜 세월 막혔다고 했는데 이는 월천 조목이 퇴계의 제자로서 큰일을 하였지만 자신은 퇴계의 학맥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였음을 우의하여 표현한 것이다.

고산에서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 오르면 청량산 입구에 이르는데 청량교가 놓여 있고 강원도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강물이 흘러가는 이 굽이가 도산구곡 제9곡인 청량이다. 청량교 중간에 서서 위로 바라보면 오른쪽은 축융봉이, 왼쪽은 건지봉이 솟아 있고 그 사이를 낙동강 강물이 힘차게 흘러간다. 아래로 굽어보면 축융봉의 산발치를 따라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시야가 다하는 지점에서 한번 굽어 고산을 향하여 흘러간다. 이 굽이에서 조금 올라가면 퇴계가 머물렀던 淸凉精舍가 나오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淸凉寺가 나타난다. 퇴계는 일찍이 이 굽이에 이르러 청량산 유람을 마치고 청량정사에 머물며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인들이 이 굽이를 도산구곡의 극처로 설정하고 유람의 끝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九曲淸凉更屹然　　구곡이라 청량산 더욱 우뚝하니
祝融南下俯長川　　축융봉이 남쪽 아래로 긴 내를 굽어보네
始知極處梯難上　　비로소 극처는 사다리로 오르기 어려운 줄 아니
十二峯巒盡揷天　　열두 봉우리 모두 하늘 높이 솟았기 때문이네
淸凉曲

이가순은 청량에 이르러 우뚝 솟은 청량산과 축융봉이 남쪽 아래로 긴 내

20) "甲子六月望日 陪郭明府 與諸人 避暑月川亭 因泛風月潭"(李晩輿, 『吾家山誌』 卷1)

를 굽어보는 경관을 바라보며 도산구곡 極處를 생각하였다. 극처는 너무 높아 사다리로 오르기도 어려웠다. 청량산 열두 봉우리가 모두 하늘 높이 솟았기 때문이다. 극처는 유람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학문이 이르는 최고 경지이기도 하다. 조선조 士林에게 자연은 단순히 자연에 그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자연은 道가 내재된 존재였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道에 이르는 첩경으로 생각하였다. 하계 이가순은 도산구곡을 거슬러 오르며 퇴계의 遺躅을 생각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선조를 추모함이 아니라 자연 속에 내재된 이치를 궁구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하계는 도산구곡 제9곡 청량에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극처는 쉽게 오를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21] 여기에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진정한 극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노래했으니 이는 바로 전형적인 托興寓意的인 시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安愚 金泳斗는 도산구곡의 각 지점과 관련된 퇴계시의 시상을 원용하여 도산구곡시를 창작하였는데 제9곡 시에서 저 멀리에 妙處가 있다고 하여 도학의 최고 경지가 멀지 않음을 우의하였다.

| | |
|---|---|
| 九曲淸凉眼豁然 | 구곡이라 청량은 눈앞이 환하게 트이니 |
| 同來努力造山川 | 함께 와 노력해서 산천 절경에 이르렀네 |
| 前程更有難言妙 | 앞길에 말하기 어려운 묘처 다시 있으니 |
| 一上高峰不遠天 | 높은 봉우리에 오르자 하늘이 멀지 않네 |

제9곡시의 前2句에서는 동유들과 더불어 청량산에 오르니 눈앞이 환히 트이니 절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읊었다. 이는 퇴계의 「淸凉曲」詩 "어찌 여기에 함께 와서 노력해 절경에 이를 줄을(安得此同來 努力造絶境)"에서 원용한 것이다. 後2句에서는 힘들여 올라온 청량산 높은 봉우리가 절경이기는 하지

21) 김문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3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마는 더 높이 올라가야 眞源妙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도산구곡의 끝굽이인 청량산이 진경이지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유람의 極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니 이 제9곡에는 道學의 妙理가 寓意的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안우의 도산구곡시는 托興寓意의 詩라 하겠다.

## Ⅳ. 陶山九曲詩의 九曲文化史的 의의

조선조의 유학자들은 朱子를 신봉하여 武夷山의 九曲을 聖地나 聖所로 여겼고 武夷櫂歌를 문학의 전범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朱子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였다. 주자가 중국의 명산인 무이산에 武夷精舍를 구축하고 武夷九曲을 경영하면서 武夷櫂歌나 武夷精舍雜詠을 읊으면서 武夷圖를 그려 완상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겨 각자 勝地에 精舍를 다투어 짓고 九曲園林을 경영하고 武夷櫂歌나 武夷精舍雜詠을 차운하여 지으면서 武夷圖나 자기가 경영하는 九曲園林의 九曲圖를 그려 완상하기도 하고 武夷志를 吟誦하는 등 朱子學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거대한 九曲文化를 형성하였다.

성리학이 전성기에 이르자 嶺南에서는 1500년 경에 朴龜元이 「姑射九曲歌」를 지었고 1536년에 朴河淡이 逍遙堂을 구축하고 雲門九曲을 경영하면서 「雲門九曲歌」를 지었으며 同時期에 退溪가 陶山書堂을 짓고 무이도가 차운시를 지었다. 이어서 퇴계의 문인 鄭逑는 武屹精舍를 짓고 무이도가 화운시를 지음으로써 嶺南學派 九曲詩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이어 李重慶이 梧臺九曲을 경영하면서 「梧臺九曲歌」를 짓게 되었고 18세기에 들어서는 鄭萬陽이 橫溪九曲을 경영하며 「橫溪九曲詩」를, 蔡憲이 石門亭九曲을 경영하며 「石門亭九曲歌」를, 李漢膺은 春陽九曲을 경영하며 「春陽九曲詩」를 지어 계보를

이었다. 19세기에는 李源祚가 布川九曲을 경영하면서 「布川九曲歌」를 창작하였다. 물론 李重慶, 鄭萬陽, 蔡憲, 李漢膺, 李源祚 등도 모두 각자의 구곡원림 안에 정사를 건립하였고 무이도가의 차운시도 남겼던 것이다.

한편 畿湖에서는 栗谷이 高山九曲을 경영하면서 石潭精舍를 구축하고 「高山九曲歌」를 짓자 宋時烈이 華陽九曲을 경영하면서 巖棲齋를 짓고서 「高山九曲歌」를 한시로 번역하여 畿湖學派 九曲詩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어서 金壽增은 谷雲九曲을 경영하면서 그의 아들과 함께 「谷雲九曲歌」를, 權尙夏는 黃江九曲을 경영하면서 「高山九曲歌」 1수를 漢譯하였다. 특히 權燮은 權尙夏의 조카로서 「黃江九曲歌」를 시조와 한시로 동시에 지었을 뿐 아니라 花枝九曲을 경영하면서 「花枝九曲歌」(身北九曲歌)를 짓는 등 구곡시의 대가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는 洪良浩가 牛耳洞九曲을 경영하면서 「牛耳洞九曲歌」를, 20세기에 들어 李道復이 駟山九曲을 경영하면서 駟山精舍를 짓고 「駟山九曲歌」를 지어 畿湖學派 九曲詩의 전통을 이었다.[22]

이상에서 주요한 구곡원림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조 구곡시의 두 계보는 主理論과 主氣論이라는 상호 대립되는 철학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嶺南學派에서는 무이도가를 주로 재도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造道詩로 본 것이 대세이고 畿湖學派에서는 奇高峰을 중심으로 이를 因物起興的이고 敍景的인 詩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인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모두 이렇게 뚜렷이 구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陶山九曲詩가 九曲文化史的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도산구곡시는 영남학파 구곡시의 주류를 형성하여 여타 구곡시 창작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도산구곡시는 조선조 후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됨

22)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참조.

으로써 영남지역에 10여 개의 구곡원림이 형성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무이도가 차운시는 물론 원림구곡시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채헌(171~1795)의 石門九曲, 朴履坤(1730~1783)의 洛江九曲, 崔南復(1759~1814)의 白蓮九曲, 姜必孝(1764~1848)의 大明山九曲, 李漢膺(1778~1848)의 春陽九曲, 崔孝述(1786~1870)의 聾淵九曲, 李源祚(1792~1871)의 布川九曲, 吳璣泳(1837~1917)의 長田九曲, 金東鎭(1867~1952)의 東溪九曲, 丁泰鎭(1876~1956)의 仙遊九曲, 閔禹植(1885~1973)의 雙龍九曲, 宋璨圭(19세기)의 磻溪九曲, 李錫大(19~20세기)의 德淵九曲 등 구곡원림의 설정과 원림구곡시의 창작은 퇴계학파의 빈번한 교류에 의하여 안동을 중심으로 널리 창작된 陶山九曲詩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도산구곡시의 창작과 함께 구곡시에 대한 비평이 전개됨으로써 도산구곡시 작자들은 조선조 후기 영남학파의 구곡시 비평을 주도하였다. 이이순, 조술도, 이시수, 하범운 등은 본격적인 비평의 글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도산구곡시의 竝序를 통하여 나름대로 구곡시에 대한 비평을 전개하였다. 조술도와 이시수는 장문의 글을 통하여 武夷志, 詩註, 퇴계의 비평 등을 소개하거나 논평하고 자기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다. 특히 이시수는 「謹次武夷櫂歌竝序」를 통하여 무이도가에 대해 入道階級說을 부정하고 퇴계는 尋幽選勝을 말했으나 學問造詣의 妙理가 言外에 드러남을 알아야 한다[23]고 함으로써 因物起興說보다 托興寓意說을 지지했는데 실제 자신은 道學次第의 詩를 지은 바 있다. 이와 같이 무이도가에 대한 시인식과 시창작 간의 분리 현상이 종종 일어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탁흥우의 시와 입도차제 시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선 중기 이후, 영남 사림에 입도차제적인 시인식이 지배적으로 확산되어 '武夷櫂歌는 곧 造道詩'라는 선입견

23) 앞의 註 19) 참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셋째, 도산구곡시의 창작은 퇴계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다. 도산구곡시의 창작은 이야순을 비롯한 이이순, 이가순 등 후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도산구곡시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조술도, 이종휴, 유병문, 금시술, 하범운 등에게 도산구곡시 창작을 권유하여 도산구곡시를 시·공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퇴계학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도산구곡시의 창작자들은 한결같이 무이산과 도산을 동일시하였고 퇴계를 주자학의 계승자로 칭송하였기 때문이다.

① 세상에서 陶山을 일컬어 武夷라고 한다. 지역이 서로 떨어짐이 1만여 리이고 시대가 뒤짐이 3백여 년인데, 두 산이 서로 이름을 나란히 하는 것은 바로 楊恒叔이 말한 '땅은 사람이 뛰어남으로 인하여 함께한다.'고 한 것 때문이다. 두 선생이 지은 雜詠으로 살펴보면 무이 十二詩와 도산 十八絶이 또한 마디마디 서로 부합함이 있다.[24]

② 이에 마음에 느낌이 있어 말에 드러내어 굽이마다 차운하여 그 곳에 적고 그 일을 서술하여 뒷날 이 곳을 밟는 이가 이산〔陶山〕이 무이와 그다지 멀지 않고 이와 같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陶山誌를 저술하여 구곡의 형승을 실어서 武夷志와 전후로 아름다움을 짝하게 하니 어찌 이 산의 다행이 아니겠는가.[25]

③ 처음에는 만학 천암의 그윽하고 깊은 곳을 찾고 마지막에는 끝없는 별천지의 기이한 절경을 대함에 가득히 얻어 호연히 돌아옴에 거리가 멀고 시대가 먼 한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이는 산천 운물이 서로 비슷해서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천지간에 吾道의 한 기맥이 북에서 남으로 서로 관통해서가 아니겠는가.[26]

---

24) 世稱陶山爲武夷 地之相去 萬有餘里 世之相後 三百餘歲 而二山之相與齊名者 政以楊恒叔所云 地因人勝同故也 以二先生所著雜詠觀之 武夷之十二詩 陶山之十八絶 亦有節節相符(李頤淳, 『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25) 始探萬壑千巖之幽深 終臨窮源別天之奇絶 充然而得 浩然而歸 不覺有里萬歲曠之恨焉 此非惟山川雲物之有相依似 而抑亦天地間吾道一氣脈 自北而南 相與貫通而然歟(李頤淳, 『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④ 회재와 퇴계는 거의 끊어진 주자의 도학의 연원을 수백년 뒤에 이었고 이들의 장구지처인 溪山을 시로 읊은 아름다움이 동일하다.[27]

위의 ①에서는 무이산이 도산과 시·공간적으로 멀지마는 동일시되는 것은 주자와 퇴계라는 인물 때문이고 실제로 무이산과 도산을 소재로 한 작품도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고, ②에서는 이이순이 도산구곡시를 지은 것도 후인들이 도산이 무이산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陶山志를 저술한 것도 武夷志와 짝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여 퇴계와 퇴계학을 빛내기 위한 노력과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에서는 무이구곡이 거리와 시대적으로 멀지마는 한스럽지 않은 것은 자연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라 朱子의 道가 退溪로 계승되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고 ④에서는 중국에서도 거의 끊어진 주자의 도학이 회재와 퇴계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읊은 무이구곡시마저 그 아름다움이 동일하다고 칭송하고 있다.

넷째, 도산구곡시 13편은 구곡시들 중에서 최고의 作品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陶山九曲詩群은 구곡시 연구와 구곡문화 연구의 중심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무이도가 차운시를 비롯한 각종의 구곡시가 수많이 창작되었지만 원림구곡시 중에서 도산구곡시만큼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시대적으로 오랫동안 창작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28] 高山九曲, 武屹九曲, 華陽九曲, 朝陽書

---

26) 終臨窮源別天之奇絶 充然而得 浩然而歸 不覺有里萬歲曠之恨焉 此非惟山川雲物之有相依似 而抑亦天地間吾道一氣脈 自北而南 相與貫通而然歟(『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27) 惟我晦退兩先生 續紫陽夫子幾絶之緖 於累百年之後 使千聖單傳之旨 得以大行於吾東 蓋其道學淵源之正 固已單的 而杖屨棲息之所溪山 題品之美 古今而一軌焉(李著秀, 『慕亭先生文集』 卷1, 詩, 「謹次陶山九曲歌幷序」).

28) 安極(1864~1945)의 盤溪九曲詩에 대한 次韻詩가 廉琪煥외 10인에 의해, 程川九曲詩의 次韻詩가 8인에 의해 지어졌으나 이는 變質九曲詩로서 동시대인들의 詩會性 창작품이다.

堂九曲, 武溪九曲에 대한 구곡시가 다소 있으나 7~8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도산구곡시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12인에 의해 13편이 창작되었으므로 단연 최고의 작품군에 해당한다. 앞으로 조선조의 구곡시 연구와 구곡문화 연구는 물론이고 전통문화 원형 연구에도 주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 Ⅴ. 맺음말

지금까지 도산구곡의 작품 현황과 도산구곡시의 창작 경향, 도산구곡시의 구곡문화사적 의의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도산구곡시는 18세기 후반에 이야순을 비롯한 이이순, 이가순 등 퇴계의 가학을 계승한 후손과 이들과 동시대 혹은 후대 19, 20세기에 생존했던 12인에 의해 13편이 창작되었다.

이들 도산구곡시는 모두 무이도가를 차운하거나 이야순이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지은 도산구곡시를 再次韻한 7言絶句 10首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各曲 詩의 끝에 대상 구곡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서 일종의 題詠詩 형식을 띠고 있다.

퇴계학파 문인들의 도산구곡시는 퇴계의 무이도가 시인식에 따라 입도차제의 시와 탁흥우의의 시, 이 두 경향으로 창작되었다고 보고, 도산구곡시 13편을 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 각 구곡시의 제9곡과 竝序 등을 중심으로 시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12인이 지은 13편의 도산구곡시 가운데 입도차제의 시는 廣瀨 李野淳을 비롯하여 下庵 李宗休, 晩谷 趙述道, 素隱 柳炳文, 聹窩 崔昇羽, 梅村 琴詩述, 慕亭 李蓍秀, 竹塢 河範雲, 晴溪 崔東翼 등이 지은 10편이었다. 입도차제의

도산구곡시를 창작한 이들은 최동익 외에는 모두 18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9세기 전반까지 생존한 인물로서 도산구곡시 창작의 주류가 되었다. 이들은 대개 승경을 이루고 있는 청량산을 인간의 삶에 더없는 이상적인 眞源妙處로 보고 청량산이 바로 도의 極處이지 別天地가 따로 없다고 하였다. 제9곡을 丹砂로 설정한 이들은 단사가 푸른 강물과 단애가 어우러진 절경을 이루고 있기에 학문의 즐거움, 진리가 충만한 동천이라 보고 단사협이 바로 遊覽의 極處요 道學의 眞源이라 하였다.

특히 慕亭 李著秀는, 陳懼齋의 註說에서는 무이도가를 入道階級으로 파악했으나 주자의 구곡도가의 본의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다고 보고, 퇴계의 구곡도가 화시가 빼어난 절경을 찾는 뜻을 말하였지만 學問에 이르는 妙理가 言外에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자의 무이도가나 퇴계의 和詩는 단순히 敍景的인 因物起興적인 詩가 아니라 道學的인 妙理가 드러나는 托興寓意的인 詩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 자신은 入道次第의 도산구곡시를 창작하였다.

이와 같이 무이도가에 대한 시인식과 시창작 간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탁흥우의 시와 입도차제 시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선 중기 이후, 영남 사림에 입도차제적인 시인식이 지배적으로 확산되어 '武夷櫂歌는 곧 造道詩'라는 선입견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았다.

탁흥우의의 도산구곡시를 창작한 이는 後溪 李頤淳, 霞溪 李家淳, 安愚 金泳斗 등 3인인데 이들은 제9곡 청량이 아직까지 極處는 되지 못하고, 좀 더 나아가야 하니 멀리 우뚝 솟은 12봉우리가 진정한 極處가 됨을 노래하였다. 우뚝한 12봉이 바로 遊人의 別天이고 道學의 造詣處가 된다고 함으로써 탁흥우의적인 시인식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도산구곡시를 창작한 퇴계학파 유학자들은 대부분 입도차제적인 구곡시를 지었는데 탁흥우의의 시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입도차제의

구곡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퇴계학파 문인들이 퇴계의 무이도가에 대한 시인식과 달리 입도차제의 시를 많이 짓게 된 것은 당시 사림을 지배하던 文以載道的 문학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도산구곡시의 구곡문화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산구곡시는 영남학파 구곡시의 주류를 형성하여 여타 구곡시 창작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도산구곡시의 창작과 함께 구곡시에 대한 비평이 전개됨으로써 도산구곡시 작자들은 조선조 후기 영남학파의 구곡시 비평을 주도하였다. 셋째, 도산구곡시의 창작은 퇴계학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도산구곡시 13편은 구곡시들 중에서 최고의 作品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陶山九曲詩群은 구곡시 연구와 구곡문화 연구의 중심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도산구곡시의 창작 경향과 시인식 분석을 도산구곡시 각편의 全章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제9곡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고산구곡가」 등 기호학파 구곡시와의 관계도 미처 따져보지 못하였다. 이를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남겨 둔다.

그러나 구곡시에 대한 연구는 구곡원림에 대한 현장조사와 고증, 구곡시 관련 자료 수집 등 기초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소재와 형상물 간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 영남지방에 소재한 구곡원림 및 구곡시 자료에 대한 조사와 고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타 지역의 구곡원림 및 구곡시 자료에 대한 조사와 고증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구곡시는 물론 구곡문화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면 문화원형적 측면의 연구와 구곡문화지도의 제작, 구곡시와 구곡비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구곡시에 대한 연구는 무이구곡시에 대한 시인식과의 관계, 철학사상 및 학통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退溪集, 浦渚集, 梅村集, 霞溪集, 廣瀨集, 後溪集, 下庵集, 晩谷集, 素隱集, 聚窩集, 慕亭先生文集, 竹塢集, 安愚遺稿, 晴溪集, 素無軒文集, 吾家山誌, 聾巖先生文集

2. 저서 및 논문

姜正瑞, "退溪의 〈武夷櫂歌〉 詩認識의 한 局面", 東方漢文學 14, 동방한문학회, 1998.

姜正瑞, "朝鮮後期의 武夷櫂歌 詩認識", 東方漢文學 17, 동방한문학회, 1999.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학회, 1991.

_____,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2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_____,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3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도서출판 역락, 2008.

金善祺, "九曲歌系 詩歌의 展開와 〈高山九曲歌〉의 位相", 栗谷學 9호, 1999.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孫五圭, 山水文學硏究, 제주대출판부, 2000.

안장리, 韓國 八景詩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이민홍, '朝鮮朝 朱子學的 知識人의 江湖에 대한 認識', 開新語文硏究 3, 忠北大 開新語文硏究會, 1984.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硏究, 형설출판사, 1985.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李殷昌, "韓國儒家傳統園林의 硏究",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8.

Abstract

# A Study on the Poetic Situation and the Creative Tendency in Dosangugok Poems(陶山九曲詩)

Kim, Mun-Kie

This study considered about the poetict situation and the creative tendency of Dosangugok Poems, and about significance of Gugok(九曲) cultural history in Dosangugok Poems(陶山九曲詩).

Among 13 pieces of Dosangugok Poems that were composed by 12 people, the poetry of Ipdochaje(入道次第) included 10 pieces. These poems mentioned that Mt. Cheongryang is just Geokcheo(極處) and that there is no separate another world, with seeing Mt. Cheongryang, which mostly forms beautiful scenery, as the highest ideal Jinwon(眞源) for a human being's life.

Those who created Dosangugok Poems in Takheungwoowi(托興寓意) include 3 people. These people's poems sang that Cheongryang in the ninth curve fails to be Geokcheo yet, and needs to advance more, thus 12 peaks of standing high far away becomes true Geokcheo.

The significance of Gugok cultural history in Dosangugok Poems was arranged as 4 kinds below.

First, Dosangugok Poems formed the mainstream of Gugok poetry in the Yeongnam School(嶺南學派), thereby having played a role of catalyst in creating other Gugok poems. Second, the criticism on Gugok poems was developed along with creation in Dosangugok Poems, thus the authors of Dosangugok Poems took the lead in criticism of Gugok poems in the Yeongnam School for the latter term of Joseon Dynasty. Third, the creation of Dosangugok Poems greatly contributed to inheriting and developing Toegyehak(退溪學). Fourth, 13 pieces of Dosangugok Poems form the best work cluster among Gugok poems. Thus, the cluster of Dosangugok Poems may become the central text in a research on Gugok poems and in a research on Gugok culture.

Key Word

Dosangugok, Dosangugok Poems, Ipdochaje(入道次第), Takheungwoowi(托興寓意), Yeongnam School, Gugok culture. Geokcheo(極處), Jinwon(眞源)

▪ 논문투고일 : 2009.6.30. 심사시작일 : 2009.7.18. 심사완료일 : 2009.8.4.